

시론



박노식 시인·시엔영 원장

저녁의 퇴근길은 늘 허허로운 느낌을 준다. 싱크대 흡통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미처 닦지 못한 이불 전의 빈 밥그릇을 멍하니 내려다볼 때의 그 처연함과 불현듯 몸속에서 한 바가지의 뜨건 호흡이 툭 터져 몸 밖으로 빠져나간 순간을 떠올리게도 한다.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 저녁은 이런 기분이 더 강하게 나타나 별난 의로움마저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주위는 스산해진다. 그래서일까. 겨울 저녁의 퇴근길은 유난히 가다립과 그리움이 교차해서 숨이 가쁠 때가 있다. 이럴 땐 갖길에 차를 세운 채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토하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 풀리기는 한다. 밖으로 쉬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 동구 밖에서 찬별들을 바라보는 느낌은 아픔이어서 오는지 생각하게 만들고 또 그 원인을 발견하게 하므로 역설적으로 슬픔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다. 비록, 이와 같은 개인의 사소한 감정적인

‘사قم’의 진실성

하루일 망정 누군가 짓밟고 몽개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사귀어 봐야 안다’는 속담이 있다. 깊은 물이든 얇은 물이든 자신이 직접 건너가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물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사람은 더욱 그럴 것이다. 사귀기 전에 첫 인상만 보고 미리 상대를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사람들은 수없이 겪으며 후회의 늪에 빠져 자신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다. 첫인상은 순간일 뿐, 영원하지 않다. 흉악범을 알기 전에 누가 그의 얼굴을 보고 범죄의 인상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겉은 껍데기에 불과하므로 온전히 믿어선 안 된다. ‘사قم’이라는 말은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이다. 결과는 그 과정에 속하지 않으므로 알 수 없다. 친구와 헤어지거나 애인과 이별하는 경우도 역시 그렇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혼이 급증하는 걸 보면 결국 부부도 사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의하면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게 진실한 ‘사قم’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귀는 일은 자신이 투명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동안 원하던 원하지 않든, 한 사람과 사귀면서 너무 큰 고통과 셀 수 없는 가스라이팅을 받아왔으며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었다. 새끼 캥거루처럼 주머니

속에 틀어박혀 세상에 대해 눈을 감은 채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삶을 핍진(乏盡)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자는 단 하루의 여유도 없이 곧장 권좌에서 끌어 내려야 국민이 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방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와 사귀는 일은 몹시 위험한 일이다. 지인 중에 서른 초반의 딸이 있는데 필자에게 들려준 말은 통쾌했다. 그날,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가결되기 몇 시간 전에 그 딸이 사귀는 남자 친구에게 집회 장소에 가자고 했었다. 커피를 마시고 나오면서 딸이 여의도로 가자고 하자 남친은 광화문으로 간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결별을 선언했다고 한다. 지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필자는 머리끝이 쭈뼛해져서 한동안 가슴이 뛰어서 혼났다. 상쾌했다. “...내 비밀은 이거야. 아주 간단한 건데... 그건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장미를 그토록 소중하게 만든 건 네가 그 꽃을 위해 사용한 시간들이야.” “너는 내 장미에게 책임이 있어...”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김용기 옮김, 인디북, 2004. 마음이 얼음장 같지만,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살아있으므로 우리에게 내일이 밝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사람은 애초에 사귀지 못한 것만 못하다.

社說

광주·전남 빛낸 올해 시책들 널리 공유·확산되길

광주와 전남도가 2024년 우수 정책을 선정하며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올해 최고 시책은 ‘공공심아어린이병원’이 차지했다. 고비용 응급실 이용, 아동병원 오픈된 등의 열악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안심의료체계로 365일 24시간 운영돼 호평받고 있다. 이어 ‘폐기물이 자원이 되는 친환경자원회수시설’, ‘사회관계 돌봄으로 만드는 고독사 없는 광주’, ‘지역경제는 살리는 상생카드’, ‘제2순환도로,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은 연결합시다’ 등의 순이다. 전남도는 ‘통합대학교 국립과대학 설립’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200만 도민의 숙원인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상생·화합 정신을 바탕으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2·5위는 ‘1조 4천억원 투자 실현 여수 묘도 LNG 허브터미널’, ‘2024-2026 전남세계관공문화대전’, ‘인구관계 임종으로 버려질 등 농업재해 인정’, ‘전남도 출생기부수당

지급’으로 결정됐다. 비록 설문조사와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순위를 매겼다고 하지만 올 한해를 빛낸 정책들은 적지 않다. 광주시는 후보를 15개로 압축했고, 전남도는 35건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비단이 이쁜 아님 것이다. 예산 감축, 불경기 등 악조건에서도 직원들이 한 걸음 더 뛰어 주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우수 사례가 전국으로 널리 공유되고 확산돼야 하는 것이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 차질 없는 추진에 유념해야 하겠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최대 현안일 것이고, 경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12·3계엄과 현재의 탄핵 심판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그렇고 재정형편 등 지자체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 공무원들의 역할이 커졌다. 더구나 내년은 민선 8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보다 책임있는 자세, 사명감으로 공직의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광주 통합예약플랫폼 인기는 시민들과 소통의 결과

광주와 산하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대관을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플랫폼이 시민들의 필수템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른바 ‘바로예약’은 지난 2020년 구축됐으나 예약·접수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2022년 서비스 확대와 검색 강화 등 고도화를 거쳐 현재의 시스템을 갖췄다. 교육·강좌는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 문화도시조성과, 광주김치타운, 역사민속박물관,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의를 예약할 수 있다. 견학·체험은 농업기술센터,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 신창동마한유적체험관 등에 문의가 많고 연말연시를 맞아 방울토마토 따기와 토마토 피클 등을 담은 농촌체험부터 크리스마스 스리스 만들기까지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문화·행사는 광주문화예술통합플랫폼인 ‘디어 마이 광주’와 연동돼 해당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다.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 등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12월부터는 북구 월출동 ‘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을 추가해 가족 단위 캠핑족들의 예약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예약플랫폼 ‘바로예약’ 이용자 수가 올해 11월까지 8만7천214명으로, 지난해(2만6천133명)보다 3배 이상 경증 뛰었다. 누리집 방문자는 2022년 9만9천988명에서 올해 14만5천118명으로 역시 급증, 인지도가 높아졌다. 기존의 전화 접수, 방문 예약, 시설별 개별 사이트 이용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함으로써 교육·문화·체험·행사 홍보 역할도 특출히 하고 있다. 특히 연령·성별·지역별·개인별 관심 정보 등에 기반한 맞춤형으로 편의성이 대폭 향상돼 인기가. 시민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권익을 증진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일상적인 요구까지 두루 수용해 ‘내일이 빛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더 알려졌고 참여자 또한 증가 추세다. ‘바로예약’은 광주시 누리집 ‘온라인예약신청’ 메뉴를 통해 접근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통합예약플랫폼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고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36년, 148만, 96.5%. 뜬금없는 수치의 나열이지만 이렇게 적어본 수치가 여유롭게 다가온다. 광주시교육청의 행정혁신 사례인 주차장 이야기이다. 1988년 개청 이래 36년 만에 민원인들의 불만과 직원들의 고통이 해소됐다. 자주식 주차장을 지어 148만을 더 확보했기에 화동동 시교육청으로 향하는 승용차 핸들링이 가볍다. 예전에는 흑시나 하고 빼곡한 주차장에 들어가지만, 역시나 한 바퀴 돌아 근처의 골목길 아니면 유료주차장 신세였다. 그러니 항상 서두르고 쫓기듯 다녔다. 365일, 24시간 무료이고 주말과 휴일에도 전면 개방이나 이용자 만족도가 96.5%다. 시교육청의 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와 학교시설 공유사업을 추진해 13개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했다. 그리고 체육관을 비롯해 학교 문화복지시설을 확대 개방해 학교가 지역주민의 배움터로 문화시설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편안하게 시교육청에 들어서면 커다란 노벨문학상 축하 플래카드가 벽면에 걸려있다. 소설가 한강이다. 눈꺼풀이 움직인 듯 살짝 가라앉은 미소로 우리를 반긴다. 광주시교육청은 2024년부터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고 시민과 함께 독서 열기를 확산시키고자 ‘광주는 독서 중, 다책 열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런 열정이 담긴지 우연

광주교육, 값진 한 해

의 일처럼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이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상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 수상 소식과 축하 플래카드로 장식된 청사(廳舍) 벽면이었다. 한국메니페스트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약속한 공약의 추진 결과이기에 그의 의미가 크다. 정책공약 완료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종합 최우수(SA)와 전 분야 최우수(SA)라는 성과는 각 정책에 대해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얻어올 수 있었던 결실이었다. 또한 2024년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이 됐다. 참으로 오랜만에 광주시교육청 앞에 최우수란 수식어가 붙었다. 매년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이번 평가 분야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육의 디지털 전환,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주요 교육 행정의 5개 분야였다. 이 5개 분야에 따른 세부 18개 지표 기준의 통과율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등급을 부여하는데 18개 지표를 모두 통과해야만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될 수 있는데 광주시교육청은 18개 지표 기준을 모두 통과해서 ‘최우수’ 등급으로 올랐고 부상으로 특별교부금도 추가로 받았다.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돼 받게 된 특별교부금을 비롯해 재정집행률 목표달성 인센티브,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시범교육청 지정,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3기 지정, 한국어 교육기반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 SW미래채움 사업,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선정 등으로 약 7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다. 이는 세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발휘한 적극 행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의 또 다른 성과는 직업계고의 혁신적인 변화이다. 12개 직업계고 지원율이 127%를 기록했다. 이는 시교육청의 ‘다양한 실력이 미래’라는 정책 기조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미달이 반복돼 추가모집을 하거나 정원을 채우지 못했던 예년에 비하면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스마트팩토리과, 웹툰애니메이션과 등 학과를 재구조하고, 지식전략사업에 맞춰 광주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는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도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를 보면 광주는 전년보다 29%가 증가한 55.9%로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실력향상과 함께 직업계고의 지원율과 취업률 상승은 광주시교육청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동행인 것이다. 이외에도 마을교육공동체와 온마을이음학교 운영을 위해 시교육청과 시청, 5개 구청이 협약을 맺어 전국 최초로 교육협력의 모형을 만드는 등 시민과 함께 미래가는 열정의 날이었다. 이처럼 여러 교육적 성과지표가 크게 상승한 광주시교육청의 값진 한 해는 참으로 값진 해였다. 그렇기에 설레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린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과 함께.

독자투고

최근 보이스피싱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의 고위직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피해자는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받아 개인정보를 탈취당하고, 이후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본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먼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더라도 절대 현금을 입금하지 말아야 한다. 반드시 해당 가족이나 지인에

‘보이스피싱’ 알면 막을 수 있다

게 직접 연락해 진위를 확인하고, 필요 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사에 직접 전화해 실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선영·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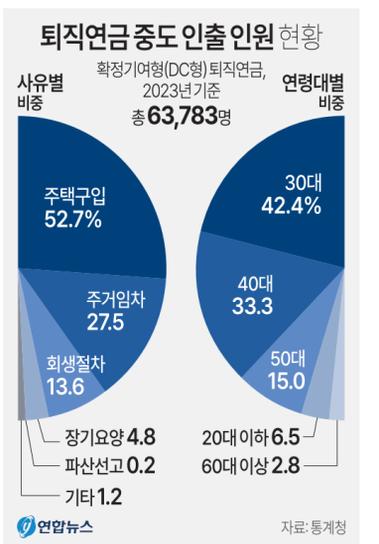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경찰을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본 원칙을 준수한다면, 피해를 줄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선영·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퇴직연금 갠 사유는 주택·주거...정부, 중도인출 요건 강화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뉘는 유형 중에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반면 DC형은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충족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를 보면, 지난해 DC형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6만4천명, 인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인원은 281%, 금액은 40.0% 각각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52.7%(3만3천612명)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했다. 주거 임차 사유로 든 인원은 1만7천555명으로 27.5%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다층노후 소득 보장체계의 중요한 기둥이다. 이에 정부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중도 인출 사유를 연구장에, 과도한 의료비, 주택 압류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곤란 상황’으로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규토록 월 15,000원 1부 800원